2021년 9월 19일 (백) 한가위 No. 1279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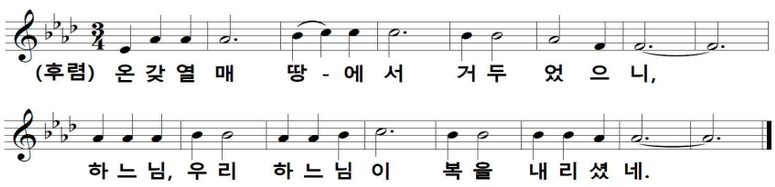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요엘 2,22-24.26ㄱㄴㄷ

[7화답송] ..... 시편 67(66),2와 4ㄱ.5ㄷ과 6-7 (◎7)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제 2 독서] ..... 묵시 14,13-16

[복음환호송] ..... 시편 126(125),6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음] ..... 루카 12,15-21

[성가안내]

- 입당성가 [66] 주의 백성 모여오라
-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 파견성가 [77] 주 천주의 권능과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이규정 영혼을 위해	이규완 안토니오
홍문표 어거스틴	김영숙 카타리나
박우양 토마스	박신희 리나
생미사	**봉헌**
이종현/목영순	이경자 율리안나
남승례 아가다 (건강 회복을 위하여)	이은경 헬렌
배 쏘피아 (빠른 쾌유를 위하여)	율릿다 김경련
임아아론(Aarone, 생일 축하)	율릿다 김경련
전마지 마가렛	익명
배재철 안토니	안선정 마리안나
박수정 크리스티나/박수진 줄리아 (건강위해)	양미숙 마리아
서경자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서경자
문형남	이영래 엘리사벳
김승우 사도요한	이영래 엘리사벳
김승준 마태오	김재윤 사도요한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9월 19일	박기웅 사도요한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혜윤 크리스티나	이영혜 안젤라
9월 26일	이지훈 아네스	김진섭 야고보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양미숙 마리아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 공동체의 지난 25년간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공동체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e-book (홈페이지)에 25년의 역사 자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역사자료, 글, 사진등을 찾습니다. 올리고 싶은 자료가 있으신 분은 신부님, 수녀님께 연락 바랍니다.

● 내년, 2022. 3. 6 공동체 설립 25주년이 감사와 축복 행사가 되도록 수고하시는 추진 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와 도움 부탁합니다.

● 9월 19일 주일, 추석 합동 위령 미사 봉헌합니다.

올해 한가위는 9월 21일(화)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오늘 봉헌합니다.

● 예비자 교리반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하느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예비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님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도록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시다.

● 다음 주일 미사후, 9월 26일 사목협의회 있습니다.

사목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학교 교리 교사 찾습니다.

9월부터 팬데믹 이전으로 주일학교 일정이 돌아가길 희망하며 미래 교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을 도우며 사랑의 예수님께로 인도 해 줄 봉사자들을 환영합니다.

문 의 : 김 가연 크리스티나

연락처 : 347-882-2244

● 창조 시기 기도문 : 10월 4일까지 매일 밤 9시

계속되는 산불, 홍수, 폭우등 지구 온난화의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매일 밤 9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함께 '창조 시기 기도문'을 바쳐 주시길 바랍니다.

● 청년 전례부원 모집

빠른 시일안에 청년을모임이 재개되길 희망하며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시에 올려지는 청년미사에 봉사하실 전례부원들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청년 전례부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순교자 성월 기도]

◈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우리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우리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전마지(마가렛)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김용기(요셉)
지군자(스테파니)
홍봉운(바오로)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 (요한)
김옥지(아가다)
김동희(헬레나)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고종호(마태오)
진정은(마리아)
노의선(프란치스코)
이진자(세실리아)

[2021년 9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양식

우리 모두가 검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양식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이를 위하여 확고히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12,15-21)

오늘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입니다. 한가위에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 형제애를 나누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도 당신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이론이나 추상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여 나누는 사랑은 신뢰를 쌓고, 소통을 통하여 이해와 깊은 유대를 형성합니다. 하상욱 시인은 가족을 '영어'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이랍니다. 또 때로는 '한국어' 같다고도 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참 모르겠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가족은 어떠한가요? '영어' 같은가요? '한국어' 같은가요? 우리가 마음으로 대화한다면 우리 가족은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나눔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언어'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 해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하느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눈다면 더욱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우식 토마스 신부)

추석은 1년중 가장 큰 만월을 맞이하는 달의 명절로서, 농경민족으로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년을 축하. 감사하며 조상에게 제사드리고 성묘하며 효를 실행하였고, 명절의 기쁨에 넘쳐 여러가지 놀이가 있어 사람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하였으며, 신을 섬기고 풍.흉을 점치고 하였다. 풍부한 음식을 서로 교환해서 후한 인심을 보였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놀이하고 친교를 쌓는 즐거움이 있었다. 추석은 농경생활에서 수확에 감사하며 조상들을 기리고 먹을것이 넉넉함에 만족하여 온갖 놀이로 즐기는 명절로 전승되었으나 산업화, 공업화 시대에 들어와 그 절실함이 감소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고 조상님께 감사하는 본래의 뜻을 계승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다.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기분전환의 중요함

"에라 기분이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이 왜 이래"등 기분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분에 대하여 갖는 편견은 가벼운 것, 지중하지 못한 것 등등의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기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리 강하지 못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경향이라 기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심리학자 테이어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10일간 했습니다. 하루 중 다석 차례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놓고 오후보다는 오전에 덜 심각하게 느끼고 긴장 피곤 상태일 때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세상사가 다 즐거워 보이지만 기분이 나쁘면 기도도 안 되고 입맛도 살맛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기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분을 바꾸는데 걸리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일까? 강의 때 질문을 하면 다양한 시간을 말합니다. 10분부터 몇 시간까지. 답은 3초입니다. 그러면 다들 "그럴 리가?" 합니다만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이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기분 나빴다가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초 이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나가고 부인은 이불을 쓰고 누웠습니다. 누워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한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시간이 가면서 분노가 치솟고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져 갑니다. 분노를 키운 탓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식탁 위에 무엇인가를 놓고 다시 나갑니다. 부인이 일어나서 보니 웬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랍니다. 열어보니 남편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보, 미안해~ 이걸로 기분 풀어"라고 써 있고 100만원짜리 수표도 있었습니다.

자, 기분이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일까요? 이 질문을 하면 다들 까르르 웃습니다. "우리 남편이 10만원이라도 주면 소원이 없겠어요." 자매님들의 이구동성 대답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기분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린아이'같기 때문입니다.

기분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분 나쁜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니,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담하러 온 분들 중에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쾌한 것을 손에 움켜쥐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묻는 것인데 답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버릴 수 있냐고 더 움켜쥐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답이 없는 분들입니다. 내 머릿속에 기분 나쁜 것들을 불러들이지 말고, 기분 좋은 것들만 초대하세요. 즐겁게 사는 아주 간단하고 좋은 방법입니다.